



‘저PBR 기업’ 공표 기준안 발표

업종/시장별 상대 평가 적용 및 11월 첫 공표 목표

- 11월 2일 ‘저PBR 기업’ 목록 최초 공표 예정
 - 각 업종 내 PBR 기준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들이 공표 대상
 - 1) 현재 저PBR 기준 대상에 포함되면서, 2) 올해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주목
-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 기준 발표:** 7월 말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관계 부처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고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 저PBR 기업 공표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분류에 더해 각 업종별(GICS)로 분리. 누적 3년 동안 각 업종 내 PBR 기준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공표 대상
 -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 공표가 면제되는 특례도 적용. 다만, 시장별/업종별로 누적 6년간 저PBR 기준에 부합한다면 면제 특례가 적용 불가할 예정
 - 공표 시점은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증권사 HTS/MTS에 저PBR 기업은 태그가 표출될 예정. 구체적인 일정은 8/3일~24일은 의견 수렴,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 회의 승인, 11/2일 첫 공표 계획
 - 해당 정책의 목적은 기업이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음. 금융당국은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함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Naming & Shaming’ 효과 예상
 - **투자 아이디어:** 저PBR 기업 공표제도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로는, 역발상 측면의 접근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 우선 제도의 취지 자체가 주가 부진 기업을 지목하는 측면보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등을 유도해서 주주 친화적 행동을 통해 주가가 부양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기업 측면에서 보면 Naming & Shaming에 지목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주주 친화 및 주가 부양 측면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 11월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런 액션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이런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실적 성장”이라는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저PBR 공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1) 현재 저PBR 기준 대상에 포함되면서, 2) 올해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에게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종목에는 한화생명, 롯데쇼핑, 현대체절, 롯데지주, 하림지주 등 포함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 기준 발표

7월 말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관계 부처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고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PBR 기업 공표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분류에 더해 각 업종별(GICS)로 분리된다. 누적 3년 동안 각 업종 내 PBR 기준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공표 대상이다.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 공표가 면제되는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시장별/업종별로 누적 6년간 저PBR 기준에 부합한다면 면제 특례가 적용 불가할 예정이다. 공표 시점은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증권사 HTS/MTS에 저PBR 기업은 태그가 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8/3일~24일은 의견 수렴,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 회의 승인, 11/2일 첫 공표할 계획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기업이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함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Naming & Shaming' 효과를 예상 중이다.

한편, 구체적인 PBR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반기/사업 보고서의 순자산을 활용해 확정 PBR을 산출한다. 시가 총액은 공표일(5·11월의 첫 거래일)의 7거래일 전을 기준으로 설정해 기준일을 포함한 20거래일의 평균 시가총액을 이용한다. 단, 일회적 PBR 상승으로 인한 공표 대상 제외를 막기 위해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 과거 7번째 반기 PBR이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저PBR 기업 공표제도 개요

분류	코스피/코스닥 분리 + GICS 11개 섹터
기준	코스피 각 섹터 하위 25%, 코스닥 각 섹터 하위 10%
기간	최근 3년(6반기) 누적
PBR 계산	공표일 7거래일 전 기준 20거래일 평균 시총 ÷ 사업/반기보고서 순자산
특례 면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 1년(2반기) 제외
면제 불가	6년(12반기) 장기 저PBR 기업
공표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 KRX 홈페이지+HTS/MTS 종목명 태그
일정	8/5일~8/24일: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 예고 개시 후 공식 의견수렴 시작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거래소 규정 개정안 승인 11/2일 첫 공표 추진

자료: 금융위원회, 삼성증권

저PBR 기업 공표 일정 예상안

	공표 예정일	시총 산정 기준일	대상 재무제표
1회차	'26년 11월 2일	'26년 9월 21일~10월 22일	'26년 반기 보고서
2회차	'27년 5월 4일	'27년 3월 26일~4월 22일	'26년 사업 보고서
3회차	'27년 11월 1일	'26년 9월 22일~10월 21일	'27년 반기 보고서
4회차	'28년 5월 3일	'28년 3월 24일~4월 20일	'27년 사업 보고서
	...		

자료: 삼성증권

공표 기준에 대한 설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한 이유는 코스닥은 다산다사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고, 기술·벤처 중심이라는 시장 특성상 PBR 등 재무 지표 관리에 대한 시장 관심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유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로 코스닥에 완화된 기준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구조 개편 이후 코스닥 시장이 안정화되면 기준 강화 검토가 가능하다는 단서도 추가하였다. 또한, 장치 산업/금융업 등 자산 규모가 큰 업종들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점도 반영되었다. 모든 업종을 한 번에 비교 시 상기 업종군에 속한 기업들이 저 PBR 기준에 다수 포함되는 어려움이 있어 업종별로 분류한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GICS 11개 분류 체계 내 주요 세부 산업 및 업종별 PBR 현황

섹터	산업	코스피		코스닥	
		PBR (배)		PBR (배)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에너지	에너지 장비·서비스, 석유·가스 등 연료 (석유 시추·정제·저장·수송 등)	1.08	0.70	1.03	0.85
소재	화학제품, 산업용가스, 건축자재, 용기·포장지, 금속·채광, 종이·임산물	0.82	0.43	1.21	0.73
산업재	우주, 건축·엔지니어링, 전기·기계·장비, 무역, 항공·공항, 해상·육상운송	2.32	0.68	2.11	0.91
자유소비재	자동차·부품, 가전제품·가구, 주택건설, 의류·사치품, 호텔·카지노·레저 등	0.76	0.44	1.06	0.56
필수소비재	식·음료품 및 도소매, 주류, 담배, 가정용품	1.30	0.55	1.18	0.64
헬스케어	헬스케어 장비·서비스·시설·기술, 생명공학, 제약	1.70	0.83	5.00	1.40
금융	은행, 증권업, 캐피탈업, 보험, 금융데이터, 결제, 다부문 금융지주	0.83	0.63	1.19	0.8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하드웨어, 전자부품, 반도체	3.23	1.49	2.77	1.05
커뮤니케이션	통신산업, 미디어(광고·방송·출판), 영화, 엔터테인먼트	1.03	0.77	1.01	0.71
유틸리티	전기·가스·복합·수도 유틸리티(발전소·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인프라) 등	1.06	0.40	0.86	0.71
부동산	리츠, 부동산 관리·개발·서비스	0.34	0.29	0.39	0.34

참고: '26년 6월 말 거래소 간이 사물레이션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차후 관리는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 및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 거래소는 기업 계속성, 투자자 보호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PBR 등 주주 가치 연관 주요 재무 지표를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저PBR을 상장폐지 심사 발동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시 기관 투자자가 PBR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관여를 촉진하도록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7월 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한국ESG기준원)

1. 기관 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 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 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투자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반영한다.
4. 기관 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기준과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5. 기관 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 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투자 아이디어

저PBR 기업 공표제도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로는, 역발상 측면의 접근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제도의 취지 자체가 주가 부진 기업을 지목하는 측면보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등을 유도해서 주주 친화적 행동을 통해 주가가 부양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 보면 Naming & Shaming에 지목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주주 친화 및 주가 부양 측면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 11월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런 액션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실적 성장'이라는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저PBR 공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1) 현재 저PBR 기준 대상에 포함되면서, 2) 올해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에게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스크리닝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크리닝 기준:

- 1) '26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10% 이상
- 2) '26년 예상 순이익 증가율 10% 이상
- 3) 저PBR 선정 시뮬레이션에 의한, 최신 기준 저PBR 대상 기업
 - 11월 공표 정보를 대상으로 한 최선 예측 작업 진행
 - '26년 하반기 공표 기준인, '26/25/24년 상하반기'의 6개 분기 측정 PBR를 기초로 사용
26H2의 proxy로는 최근(7/29일) 기준 20일 평균 시가총액과 1Q 지배자본 총계 기반 PBR 산출.
- 4) 현재 시가총액 4천억 원 이상

저PBR 기업 공표 제도 도입 관련, 매수 Watch List – 현재 저PBR이나 실적 개선과 함께 변화 가능성 있는 종목

코드	종목명	시장	GICS 업종	시가총액 (십억원)	'26년 영업이익 증가율(%)	'26년 순이익 증가율(%)	'26년 ROE (%)	최근 측정PBR (배)	시장/GICS 그룹 내 PBR 백분위등수 (%)	연속 저PBR 대상여부
A088350	한화생명	KS	금융	3,535	111.0	108.1	4.9	0.3	4.2	0
A023530	롯데쇼핑	KS	자유소비재	3,315	50.2	450.9	2.5	0.3	20.8	0
A004020	현대제철	KS	소재	3,269	78.4	8,923.6	0.6	0.2	6.5	0
A004990	롯데지주	KS	산업재	2,158	58.6	118.2	1.5	0.4	21.0	0
A003380	하림지주	KQ	필수소비재	988	15.4	12.5	8.1	0.3	9.4	0
A000210	DL	KS	소재	862	102.3	406.4	6.5	0.2	15.4	0
A383800	LX홀딩스	KS	산업재	566	21.9	12.1	7.4	0.3	13.3	0
A058650	세아홀딩스	KS	소재	488	16.8	18.8	3.6	0.2	10.1	0
A460860	동국제강	KS	소재	416	96.5	361.0	2.0	0.2	12.4	0
A004690	삼천리	KS	유틸리티	403	12.0	18.8	8.0	0.2	15.4	0

참고: 최근 측정 PBR은 7/29 기준의 20일 평균 시가총액과 1Q26 지배자본 총계 기준의 PBR 수치

자료: Bloomberg, Quantwise

위 종목들을, 저PBR 기업 공표 제도와 관련한 우선 관심 리스트로 제시한다.

Appendix.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시뮬레이션 결과 (추정)

추정: 11월 공표 정보를 대상으로 한 최선 예측 작업 진행. '26년 하반기 공표 기준안, "26/25/24년 상하반기"의 6개 분기 측정PBR를 기초로 사용. 26H2의 proxy로는 최근(7/29일) 기준 20일 평균 시가총액과 1Q 지배자본 총계 기반 PBR 산출. 26/11월 첫 공표 특례를 고려해, 최근 수치가 PBR 하위 포함되는 6분기 연속 하위권 종목만 스크리닝함.

한계: 이 시뮬레이션은 "24H1~26H1와 최근일"의 6개 분기 대상 작업임. 거래소 간 시뮬레이션은 "23H2~26H1"의 과거 6개 분기 대상 작업(220개)이어서 기준 차이가 존재함. 또한, 자본 총계 음수 및 미발표 기업, PBR 상위 극단값의 처리 등 세부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 날 가능성 존재함.

저PBR 시뮬레이션(6개 분기 연속 하위) 대상 기업 (1/3)

코드	종목명	시장 GICS 업종	20일 평균 시총 (십억원)	최근 시장/GICS 측정 기준 PBR 백분위등수 (배)	최근 시장/GICS 측정 기준 PBR 백분위등수 (%)
A023530	롯데쇼핑	KS 자유소비재	4,165	0.3	20.8
A088350	한화생명	KS 금융	3,837	0.3	4.2
A004020	현대제철	KS 소재	3,584	0.2	6.5
A139130	iM금융지주	KS 금융	2,832	0.5	25.0
A011170	롯데케미칼	KS 소재	2,596	0.2	8.3
A004990	롯데지주	KS 산업재	2,330	0.4	21.0
A139480	이마트	KS 필수소비재	2,243	0.2	1.4
A003380	하림지주	KQ 필수소비재	1,095	0.3	9.4
A000210	DL	KS 소재	996	0.2	15.4
A003240	태광산업	KS 소재	949	0.2	14.2
A006120	SK디스커버리	KS 에너지	936	0.3	22.2
A137310	에스티바이오센서	KS 헬스케어	756	0.3	6.6
A035760	CJENM	KQ 커뮤니케이션	678	0.2	3.6
A000370	한화손해보험	KS 금융	674	0.2	2.1
A000670	영풍	KS 소재	666	0.2	5.9
A005880	대한해운	KS 산업재	597	0.3	10.5
A383800	LX홀딩스	KS 산업재	593	0.3	13.3
A017940	E1	KS 에너지	590	0.3	11.1
A007700	F&F홀딩스	KS 자유소비재	570	0.2	13.6
A016380	KG스틸	KS 소재	515	0.2	17.2
A001500	현대차증권	KS 금융	494	0.3	8.3
A058650	세아홀딩스	KS 소재	493	0.2	10.1
A002020	코오롱	KS 산업재	487	0.2	9.4
A145990	삼양사	KS 필수소비재	474	0.3	8.5
A377740	바이오노트	KS 헬스케어	467	0.3	4.9
A002240	고려제강	KS 소재	462	0.2	16.6
A000070	삼양홀딩스	KS 필수소비재	438	0.2	2.8
A460860	동국제강	KS 소재	425	0.2	12.4
A004690	삼천리	KS 유틸리티	417	0.2	15.4
A072710	농심홀딩스	KS 필수소비재	416	0.3	9.9
A029530	신도리코	KS 정보기술	398	0.4	10.2
A016610	DB증권	KS 금융	389	0.4	12.5
코드	종목명	시장 GICS 업종	20일 평균 시총 (십억원)	최근 시장/GICS 측정 기준 PBR 백분위등수 (배)	최근 시장/GICS 측정 기준 PBR 백분위등수 (%)
A027410	BGF	KS 산업재	376	0.2	6.6
A005720	넥센	KS 자유소비재	331	0.2	10.4
A029460	케이씨	KS 정보기술	323	0.3	6.8
A078340	컴투스	KQ 커뮤니케이션	314	0.3	9.8
A009290	광동제약	KS 헬스케어	299	0.5	18.0
A005680	삼영전자	KS 정보기술	285	0.5	18.6
A004360	세방	KS 산업재	277	0.2	8.3
A017390	서울가스	KS 유틸리티	272	0.2	23.1
A001230	동국홀딩스	KS 소재	263	0.1	2.4
A151860	KG에코솔루션	KQ 소재	256	0.2	2.2
A003070	코오롱글로벌	KS 산업재	243	0.3	15.5
A002320	한진	KS 산업재	239	0.2	4.4
A003200	일신방직	KS 자유소비재	237	0.3	15.6
A008490	서흥	KS 헬스케어	232	0.5	19.7
A000050	경방	KS 자유소비재	226	0.3	21.4
A023760	한국캐피탈	KQ 금융	222	0.3	4.9
A034120	SBS	KS 커뮤니케이션	222	0.2	3.7
A013120	동원개발	KQ 부동산	216	0.2	0.0
A900290	GRT	KQ 소재	213	0.2	3.7
A033920	무학	KS 필수소비재	213	0.4	18.3
A005010	휴스틸	KS 소재	209	0.2	7.1
A000540	흥국화재	KS 금융	208	0.2	0.0
A053210	스카이라이프	KS 커뮤니케이션	196	0.4	18.5
A001630	종근당홀딩스	KS 헬스케어	196	0.3	3.3
A000140	하이트진로홀딩스	KS 필수소비재	195	0.3	16.9
A001130	대한제분	KS 필수소비재	187	0.2	0.0
A016580	환인제약	KS 헬스케어	183	0.4	16.4
A192440	슈퍼젠코리아	KQ 정보기술	182	0.3	6.5
A013580	계룡건설	KS 산업재	179	0.2	5.0
A007860	서연	KS 자유소비재	179	0.2	3.9
A035510	신세계 I&C	KS 정보기술	175	0.4	13.6
A000860	강남제비스코	KS 소재	163	0.3	20.1

참고: 백분위 등수는 샘플 내 해당 수치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20일 평균 시총은 7/29 기준, 최근 측정 PBR은 7/29의 평균 시총과 1Q 지배자본 총계로 계산.

자료: 삼성증권

저PBR 시뮬레이션 대상 기업 (2/3)

코드	종목명	시장 GICS 업종	20일 평균 시총 (십억원)	최근 시장/GICS 추정 기준 PBR 백분위등수 (배)	최근 시장/GICS 추정 기준 PBR (%)	코드	종목명	시장 GICS 업종	20일 평균 시총 (십억원)	최근 시장/GICS 추정 기준 PBR 백분위등수 (배)	최근 시장/GICS 추정 기준 PBR (%)
A213500	한솔제지	KS 소재	161	0.2	13.6	A000590	CS홀딩스	KS 산업재	79	0.2	8.8
A005960	동부건설	KS 산업재	160	0.3	12.7	A006090	사조오양	KS 필수소비재	77	0.3	11.3
A024800	유성티엔에스	KQ 산업재	156	0.3	7.8	A012700	리드코프	KQ 에너지	77	0.2	0.0
A068790	DMS	KQ 정보기술	156	0.4	9.1	A101330	모베이스	KQ 정보기술	76	0.2	1.9
A004970	신라교역	KS 필수소비재	148	0.2	7.0	A000850	화천기공	KS 산업재	75	0.2	7.2
A071840	롯데하이마트	KS 자유소비재	148	0.2	0.6	A024830	세원물산	KQ 자유소비재	74	0.2	3.8
A003830	대한화섬	KS 자유소비재	144	0.2	6.5	A004720	팜젠타이언스	KS 헬스케어	73	0.5	24.6
A460850	동국씨엠	KS 소재	143	0.1	3.0	A013870	자엠비코리아	KS 자유소비재	73	0.2	14.3
A000020	동화약품	KS 헬스케어	142	0.4	9.8	A061250	화일약품	KQ 헬스케어	72	0.3	4.8
A104480	티케이케미칼	KQ 자유소비재	139	0.1	1.1	A155660	DSR	KS 소재	72	0.3	24.3
A023600	삼보판지	KQ 소재	134	0.2	6.6	A000180	성창기업지주	KS 소재	70	0.1	0.0
A269620	시스웍	KQ 정보기술	132	-5.8	0.2	A004440	삼일씨엔에스	KS 소재	70	0.3	19.5
A003100	선광	KQ 산업재	128	0.3	8.2	A009770	삼정펠프	KS 소재	68	0.3	18.9
A004150	한솔홀딩스	KS 소재	124	0.2	11.2	A123420	위메이드플레이	KQ 커뮤니케이션	64	0.2	1.8
A037560	LG헬로비전	KS 커뮤니케이션	122	0.3	7.4	A036000	예림당	KQ 커뮤니케이션	64	0.3	5.4
A004960	한신공영	KS 산업재	121	0.1	2.2	A012790	신일제약	KQ 헬스케어	62	0.4	7.2
A077500	유니퀘스트	KS 정보기술	120	0.5	16.9	A031820	아이티센씨티에스	KS 정보기술	62	0.3	1.7
A001520	동양	KS 소재	120	0.2	4.1	A016250	SGC E&C	KQ 산업재	60	0.2	3.4
A021320	KCC건설	KQ 산업재	116	0.2	3.7	A009200	무림페이퍼	KS 소재	59	0.1	1.2
A267290	경동도시가스	KS 유틸리티	115	0.2	7.7	A129260	인터지스	KS 산업재	58	0.2	5.5
A002460	HS화성	KS 산업재	113	0.3	11.0	A075180	새론오토모티브	KS 자유소비재	56	0.2	9.7
A038540	상상인	KQ 금융	112	0.3	2.4	A088910	동우팜투테이블	KQ 필수소비재	56	0.2	3.5
A002390	한독	KS 헬스케어	112	0.4	13.1	A092440	기신정기	KS 산업재	55	0.2	7.7
A227840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KS 필수소비재	109	0.3	12.7	A004540	깨끗한나라	KS 필수소비재	53	0.3	14.1
A002620	제일파마홀딩스	KS 헬스케어	107	0.3	8.2	A040610	SG&G	KQ 산업재	53	0.1	1.9
A053700	삼보모터스	KQ 자유소비재	103	0.2	8.1	A025530	SJM홀딩스	KS 자유소비재	52	0.3	24.7
A013570	디와이	KS 산업재	102	0.3	9.9	A123700	SJM	KS 자유소비재	52	0.2	9.1
A009580	무림P&P	KS 소재	101	0.2	4.7	A007680	대원	KQ 자유소비재	51	0.2	3.2
A032940	원익	KQ 헬스케어	101	0.4	5.8	A006980	우성	KS 필수소비재	50	0.2	4.2
A039560	다산네트웍스	KQ 정보기술	101	0.4	10.0	A004060	SG세계물산	KS 자유소비재	49	0.2	2.6
A021820	세원정공	KS 자유소비재	100	0.1	0.0	A001620	케이비아이동국실업	KS 자유소비재	49	0.2	1.9
A228850	레이언스	KQ 헬스케어	100	0.4	7.5	A056360	코위버	KQ 정보기술	49	0.3	5.6
A014790	HLD&I	KS 산업재	94	0.2	3.3	A314140	알피바이오	KQ 헬스케어	48	0.4	7.9
A067830	세이브존&C	KS 자유소비재	93	0.2	3.2	A065130	탐엔지니어링	KQ 정보기술	47	0.3	4.7
A032560	황금에스티	KS 소재	89	0.2	13.0	A052790	엑토즈소프트	KQ 커뮤니케이션	47	0.2	0.0
A010960	삼호개발	KS 산업재	88	0.4	18.8	A023350	한국종합기술	KS 산업재	46	0.3	11.6
A005740	크라운해태홀딩스	KS 필수소비재	86	0.2	5.6	A000950	전방	KS 자유소비재	45	0.2	5.2
A004890	동일산업	KS 소재	85	0.2	8.9	A002920	유성기업	KS 자유소비재	45	0.2	1.3
A004840	DRB동일	KS 자유소비재	83	0.2	5.8	A094970	제이엠티	KQ 정보기술	45	0.3	4.5
A363280	티와이홀딩스	KS 커뮤니케이션	81	0.1	0.0	A008420	문배철강	KS 소재	43	0.2	11.8
A011370	서한	KQ 산업재	80	0.2	2.6	A037330	인지디스플레	KQ 정보기술	41	0.2	2.3
A047820	초록밸미디어	KQ 커뮤니케이션	80	0.3	6.3	A140520	대창스틸	KQ 소재	41	0.3	9.6
A950130	엑세스바이오	KQ 헬스케어	80	0.1	2.1	A049830	승일	KQ 소재	39	0.3	7.4
A009300	삼아제약	KQ 헬스케어	80	0.4	5.5	A900250	크리스탈신소재	KQ 소재	39	0.1	0.0
A006840	AK홀딩스	KS 산업재	79	0.2	2.8	A050860	아세아텍	KQ 산업재	39	0.3	9.7

참고: 백분위 등수는 샘플 내 해당 수치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20일 평균 시총은 7/29 기준, 최근 추정 PBR은 7/29의 평균 시총과 1Q 지배자본 총계로 계산.

자료: 삼성증권

저PBR 시뮬레이션 대상 기업 (3/3)

코드	종목명	시장	GICS 업종	20일 평균 시총 (십억원)	최근 시장/GICS 측정 기준 PBR PBR 백분위등수 (배)	(%)	코드	종목명	시장	GICS 업종	20일 평균 시총 (십억원)	최근 시장/GICS 측정 기준 PBR PBR 백분위등수 (배)	(%)
A081580	성우전자	KQ	정보기술	36	0.3	4.9	A001810	무림SP	KQ	소재	26	0.1	1.5
A083550	케이엠	KQ	헬스케어	35	0.3	3.1	A225220	제놀루션	KQ	헬스케어	26	0.4	6.5
A446070	유니드비티플러스	KS	소재	34	0.2	5.3	A109960	앱토크롬	KQ	헬스케어	25	0.1	1.7
A089140	넥스틴엔솔코리아	KQ	산업재	34	0.2	5.6	A900310	컬러레이	KQ	소재	25	0.1	0.7
A000760	이화산업	KS	소재	34	0.3	18.3	A091340	S&K폴리텍	KQ	정보기술	25	0.3	2.4
A200780	비씨월드제약	KQ	헬스케어	34	0.5	9.6	A052300	오션인더블유	KQ	산업재	24	0.1	1.1
A080520	오디텍	KQ	정보기술	32	0.3	2.8	A063760	이엘피	KQ	정보기술	24	0.4	9.3
A005820	원림	KS	소재	32	0.3	17.8	A009310	참엔지니어링	KS	정보기술	23	0.3	3.4
A001070	대한방직	KS	자유소비재	32	0.2	7.1	A044780	에이치케이	KQ	정보기술	23	0.4	9.4
A002690	동일제강	KS	소재	31	0.2	7.7	A115480	씨유메디칼	KQ	헬스케어	22	0.4	5.1
A008250	이건산업	KS	소재	31	0.2	3.6	A006200	한국전자홀딩스	KS	정보기술	22	0.1	0.0
A088790	진도	KS	자유소비재	30	0.3	18.2	A032080	아스텍WB	KQ	자유소비재	22	0.2	5.4
A012620	원일특강	KQ	소재	30	0.2	2.9	A083640	인콘	KQ	정보기술	21	0.3	3.8
A038950	파인디지털	KQ	정보기술	30	0.3	6.1	A096690	에이루트	KQ	정보기술	21	0.2	2.1
A003060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KS	헬스케어	29	0.1	0.0	A039310	세중	KQ	정보기술	20	0.2	1.4
A118000	메타케어	KS	헬스케어	28	0.2	1.6	A037400	우리엔터프라이즈	KQ	산업재	18	0.1	2.2
A017000	신원종합개발	KQ	산업재	28	0.2	5.2	A009440	KC그린홀딩스	KS	산업재	18	0.2	3.9
A002820	SUN&L	KS	소재	28	0.1	0.6	A065690	파커스	KQ	정보기술	17	0.3	4.4
A038870	에코심플렉스	KQ	유틸리티	28	0.4	0.0	A225590	패션플랫폼	KQ	자유소비재	17	0.2	6.5
A097780	에코볼트	KQ	정보기술	28	0.1	0.7	A067770	세진티에스	KQ	정보기술	17	0.3	6.6
A900070	글로벌에스엠	KQ	산업재	27	0.2	4.1	A900340	왕입푸드	KQ	필수소비재	16	0.1	2.4
A031310	아이즈비전	KQ	정보기술	27	0.2	1.0	A900300	오가닉티코스메틱	KQ	필수소비재	16	0.1	1.2
A115160	휴맥스	KQ	정보기술	26	0.2	1.7	A900110	딥커머스	KQ	자유소비재	14	0.0	0.5
A053950	경남제약	KQ	헬스케어	26	0.2	2.4	A900270	형성그룹	KQ	자유소비재	13	0.0	0.0
A045300	성우테크론	KQ	정보기술	26	0.3	6.8	A900120	씨엑스아이	KQ	필수소비재	10	0.0	0.0

참고: 백분위 등수는 샘플 내 해당 수치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20일 평균 시총은 7/29 기준, 최근 측정 PBR은 7/29의 평균 시총과 1Q 지배자본 총계로 계산.

자료: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보고서는 철저히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대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7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